

광주은행 이번엔 내부서 행장 나와야

사의 표명 송기진 행장 후임 관심

부산·대구·경남銀 잇단 배출과 대조
노조 “낙하산 인사 강행땐 투쟁 전개”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오는 14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행장이 누가 될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광주은행이 1968년 11월 20일 문을 연 이후 45년 동안 역대 단 한 차례도 자행 출신 행장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인사가 아닌 자행 출신의 행장이 나와야 된다고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지난 2001년 3월 이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이

후에도 광주은행 출신 은행장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는 여타 지역은행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부산은행은 10대 이장호 행장과 11대 현성환 행장이 부산은행 출신 은행장이다. 대구은행은 6대 윤희흡 행장만 외부 출신 행장일 뿐 전부 내부 출신이 행장을 맡고 있다. 광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도 5대 김형영 행장과 6대 이춘영 행장이 내부 출신 행장이었다.

또한 부산상고 출신으로 부산은행

내부 출신 지방은행장 현황

은행명	현 은행장	재임기간	역대 내부 출신 은행장 선임 여부
광주은행	10대 송기진	2008.6~현재	내부 출신 없음
부산은행	11대 성세환	2012.3~현재	10대 이장호 행장, 11대 성세환 행장 만 내부 출신
대구은행	10대 허춘수	2009.3~현재	6대 윤희흡 행장만 외부 출신 전부 내부 출신 행장
경남은행	11대 박영빈	2011.3~현재	5대 김형영 행장, 6대 이춘영 행장 만 내부 출신

장을 지난 부산은행 이장호 회장은 “후임자는 반드시 부산은행 출신이 돼야 한다”고 하며 최근 사임을 했다. 특히 40년 동안 외부인사 행장이 없는 대구은행의 경우 현임 행장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자행 출신 행장을 선임한 후 퇴사할 정도로 아예 외부에서 행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행 출신 행장 선임을 시스템화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한 관계자는 자행 출신 행장이 유리한 점에 대해 “지역 경제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등 여러 가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길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경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상황과 기업상황, 현금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부인사가 올 경우 이러한 상황 파악에 만도 1~2년이 소비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업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때문에 외부인사가 올 경우 학연, 지연 등 출서기를 통한 자기 사람 평가 등이 벌어져 금융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역 출신 행장은 행원부터 현장을 보며 지역과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중소기업 육성 등 일자 경영이 가능한 점도 커다란 이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앙금융과 지방은행간의 차이, 중앙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성명에서 ‘낙하산 인사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영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논란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향간에 떠는 우리금융지주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다면 사생결단의 투쟁을 전개하고 당사자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이 주인의 건강악화로 문을 닫은 지 1년여 만에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지원을 받아 11일 다시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다시 떴다

<1000원 백화점>

1000원으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이 다시 떴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짓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단돈 1000원으로 행복을 선물했으나 주인 할머니의 갑작스런 병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전통시장의 식당이 지역 백화점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마치고 11일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 재개업에는 광주신세계 봉사단 ‘희망스케치’의 힘이 컸다. 주인

김선자(71) 할머니가 병을 앓아 1년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딱한 소식을 접한 광주신세계는 지난 5월부터 식당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환경 개선활동과 리모델링 작업을 펼쳐 영업 재개를 도왔다.

식당의 벽면·바닥을 비롯해 배관과 배선 공사, 타일 설치 등 대대적인 수리와 교체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집기와 가구,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등 신축이나 다름없는 대공사를 단행했다.

김 할머니도 이러한 도움에 힘을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던 계획을 접고, ‘힘들더라도 계속 해가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날 재개업 자리에서 김 할머니는 “식당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느꼈다”며 “1000원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식당의 취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재개업을 기념해 이 날 식당을 찾은 순남 100여명에겐 ‘공짜 식사’가

광주신세계, 리모델링 지원

영업 재개… 사랑 나눔 계속

제공됐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 김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대인시장 상인회와 함께 급식봉사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해뜨는 식당은 지역사회에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가르쳐준 아름다운 상생 사례”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봉사동호회가 나서 1000원 밥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31개 기업체에

연체이자 감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기연)은 최근 “지난 3월부터 채무감면 캠페인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31개 업체, 7500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채무자의 고통경감을 위해 한 시점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보증하고 발행으로 은행에 변제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12%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기간에는 3~5%로 대폭 낮췄다.

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만을 상환해도 연체금을 감면하거나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부실률 2.44%로 전국평균 3.47%보다 낮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연체이자율을 17%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연 12%로 대폭 조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

은행·신협 연체이자 부담 준다

금감원, 기간별 차등 적용 지도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해 고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구분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지정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준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을 연 9%가 일률 적용돼 466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원만 내면 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33만원 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초 연체 발생 시부터 계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가산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 적

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지난해 1월 2일 A은행에서 1억원을 연 5%의 약정 이자율로 대출했다. 만기일인 올해 1월에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자금 상황이 좋아져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기준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을 연 9%가 일률 적용돼 466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원만 내면 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33만원 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윤년 대출이자 부담 소폭 감소

윤년 1년 366일 계산

용한다.

지금까지는 윤년에도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기업이 4번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누적 연체회수 관련 규정도 없어진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일제히 적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 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1년을 365일로 계산) 하루 이자가 약 1만3천99원(1억원x5%/365일),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1억원x5%/365일x30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로 빌릴 경우(1년을 366일로 계산) 하루에 약 1만3천661원(1억원x5%/366일), 한 달에 약 40만9천86원(1억원x5%/366일x30일)이 된다.

/연합뉴스

새얼굴

“농협 중심 농산물 유통계열화 추진”

이상우 농협경제대표이사



“농업경제의 조직문화를 혁신해 신바람 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이상우 농협경제대표 이사는 “관매 농협 구현을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계열화를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인 농업 조합원은 5% 더받고, 소비자 고객은 10% 더내는 끝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

해 조합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고흥 출신인 이 경제대표는 1976년 순천고를 졸업하고 농협 대, 서강대 대학원과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농협 대표로 취임했다.

고령 출신인 이 경제대표는 1976년 순천고를 졸업하고 농협 대, 서강대 대학원과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농협 대표로 취임했다. 또한 “생산자인 농업 조합원은 5% 더받고, 소비자 고객은 10% 더내는 끝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

여인했다.” /최재호기자 lion@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 - 소리샘보청기

소리샘 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소리샘보청기 중 고급형을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소리샘 보청기)에선 창립 20년 동안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고급형 보청기를 파격적인 저가격(기본점수로 50%)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동안 난청으로 고생 하신 어머니 아버지께 고급 보청기를 선물하는 좋은 효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혜 1. 모델별 가장 고급형 200대 한정 특가

특혜 2. 신용카드 없이도 3~36개월 할부 (삼성할부금융)

특혜 3. 고급보청기 사용 후기 제출 시, 사은품 증정

무상서비스 보증기간 2년, 1년 이내 분실 후 재구입시 50% 보상.

행사 모델: 맞춤귀속형 포커스 50 • 맞춤고막형 사운드렌즈 110 • 오픈형 자도 110 • 귀걸이형 X110

행사 기간: 2013년 4월 1일 ~ 6월 30일



사은품: 고급 온, 습도계

난청과 이명에 뛰어난